글.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2
섬 속의 섬 탐방

한반도 서남방에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는 동서 73㎞, 남북 41㎞의 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부속 섬이 60여 개나 있어 '섬 속의 섬'이라 한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가장 키 작은 가오리 섬 가파도, 소가 드러누운 모습의 우도, 날아가다 놀라 붙박이가 된 보아뱀 비양도, 바람이 허락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섬 추자도(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등은 유인도이며 도항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올레길과 역사·문화 탐방로가 잘 단장되어 있으며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차귀도, 섶섬,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들어갈 수는 없는 무인도지만 관광크루즈와 해저잠수함이 있어 바다생태와 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올레길, 지오탐사길, 환상 자전거길에서 눈길을 끄는 서건도, 형제섬, 토끼섬, 다려도도 소개한다.

추자도, 바랑케길

추자도楸子島, 추자면(상·하추자도)/면적 7.05㎢

바람이 허락하는 섬! 추자도로 가는 길은 하루에 두 번 열린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닌 곳이 추자도다. 제주도에서 53㎞나 떨어진 특수 도서 지역으로 섬 밖의 섬이라고도 하는 추자도! 그 속살을 들여다본다. 추자도는 상·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제주의 다도해다. 제주항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상추자도에 닿을 수 있다. 상추자도에는 추자항이 하추자도에는 신양항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도교連島橋인 추자교가 상하추자도를 연결하고 있다. 추자도는 화산섬이 아니라 바다에서 융기한 섬이라 풍경도 화산섬 제주와는 다르고 사람들도 제주방언을 쓰지 않고 음식도 전라도와 비슷하다. 주민 대부분인 어민들은 참조기를 잡고 낚시꾼들은 삼치와 돔 등을 잡을 수 있는 바다낚시의 천국이다. 몽골인들의 난을 진압하러 탐라로 가던 최영 장군 사당과 신유박해로 순교한 황사영과 정난주의 장남 황경한(입도조)의 묘와 눈물의 십자가는 역사탐방과 성지순례명소로 유명하다.

해안절벽과 갯바위로 둘러싸인 추자도는 추자 10경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낚시 포인트, 모세의 기적 다무래미, 후포해안과 용듬벙, 나바론하늘길, 묵리전망대, 파도 따라 몽돌이 구르는 모진이 해수욕장, 눈물의 십자가 하나도 빠뜨릴 수는 없다. 경쾌한 발걸음은 용듬벙절벽을 오르고 나무계단을 내려오면서 굳어지기 시작했고 묵직한 다리를 겨우 들어 올려가며 나바론하늘길 나무계단을 오르고 나면 나바론절벽(독산너머)에서 오금이 저려 후들·흐느적거리는 다리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차라리 눈을 감고 가는 편이 나을 듯하다. 용듬벙에서 독산, 큰산 및 등대전망대로 이어지는 능선의 바다 쪽 깎아지른 짜릿한 해안단애 나바론절벽을 따라 걷는 관광객에겐 추자관광의 백미를 느낄 수 있다. 봉글레산(해발 85.5m), 등대산, 추석산(해발 155.7m), 신대산·돈대산(해발 164m) 전망대가 보여주는 아기자기한 추자어촌풍경과 점점이 이어지는 광활한 남해의 절경을 넘치도록 담을 수 있고, 효행을 기리는 순효각純孝閣, 입도조 추모 처사각處士閣, 영흥리 벽화골목, 바랑케길, 아기업개 전설의 처녀당, 예초포구의 절경과 엄바위장승과 함께하는 팔각정 쉼터에서 빠듯한 시간을 재어보고, 돈대산 능선이나 오지박길을 선택해 걸으면서 본섬 추자도가 보여주는 바다의 멋에 취하다 보면 터벙걸음이나 잰걸음으로 길을 재촉하여, 하추자도 연도교 쉼터에서 참굴비와 추억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는 것은 올레꾼과 관광객의 특권이다.

추자 10경 : 우두일출牛頭日出/직구낙조直龜落照/신데어유漁遊/수덕낙안水德落雁/석두청산石頭菁山/장작평사長作平沙/망도수향望島守鄕/횡간추범橫干追帆/추포어화秋浦漁火/곽게창파蒼波

탐방로 올레18-1코스(18.2㎞)와 나바론하늘길(800m), 오지박길(1.7㎞), 석두리길(1.5㎞)

뚜벅이 제주항여객터미널 퀸스타2호 9:30, 레드펄호 13:45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우도牛島, 우도면, 면적 6.18㎢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한 제주의 부속 섬 60여 개 중 가장 큰 섬 우도(演坪),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이면 도착하는 섬이다. 우도는 제주도를 여행할 때 누구라도 꼭 한번 가보는 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섬이다. 2001년 우도항, 하우목동항 주변과 우도해상일대를 우도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우도 해안관광지를 순환하는 관광버스가 있어 뚜벅이 여행자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화·광고 촬영지로 알려져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가는 섬이다. 드러누운 소 모습으로 떠 있는 우도는 푸른 초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우도 올레(올레1-1코스)는 일 년 내내 쪽빛 바다색을 자랑하는 우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쇠물통언덕을 지나 제주도의 옛 돌담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올레를 걷고, 호밀과 보리, 땅콩이 자라는 밭둑올레를 즐긴다. 4계절 관광객에 따라 배편과 차량이 조절되기는 하지만 성산항에 가면 원하는 대로 우도에 갈 수 있다. 그때는 유커속의 이방인으로 올레를 관광하는 분주한 우도의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한 우도 관광은 여유와 멋이 묻어난 시간이었다.

홍조단괴·서빈백사 바닷가를 걸으며 바다와 바람 소리를 화음잡아 들려주는 소라 소리에 평온한 마음으로 추억 사진도 촬영하고, 우도 등대에 올라 망망대해의 허전한 마음을 설문대할망소망항아리에 소망을 빌어 채운다. 검멀레해안 경안동굴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고 땅콩·한라봉 아이스크림에 맛있는 즐거움을 더한다. 현무암 장수다리를 건너고 소원성취 돌의자에 앉아서 기氣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동쪽 날개 신비의 섬 비양도飛陽島를 돌아 나오면 일출과 함께 반짝이는 은빛모래사장 하고수동해수욕장이 신발을 벗긴다. 우도 섬사람의 생명수 산물통/샘물통(生水)을 지나오면 스토리텔러의 웃우뭇개의 슬픈 이야기, 득셍이코지이야기가 끝날 때쯤 승선 호루라기 소리가 발길을 재촉한다. 우도야 고맙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우도 8경 : 주간명월晝間明月/야항어범夜航漁帆/전포망도前浦望島/천진관산天津觀山/후해석벽後海石壁/지두청사地頭靑莎/동안경굴東岸鯨窟콧구멍/서빈백사西濱白沙

뚜벅이 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 페리호 → 천진항 2.7㎞/하우목동항 4.3㎞ → 우도 순환 관광버스

우도, 검멀레 해안

가파도, 환해장성

가파도加波島, 대정읍 가파리/면적 0.87㎢, 가장 높은 곳 20m

청보리가 넘실대며 춤추는 소박한 섬,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 작은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실려 오는 뭍의 소식도 함께하는 바람의 섬,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한달음에 닿을 것만 같은 아주 가까운 섬, 제주 올레길 10-1 코스에 해당하는 가파도는 4월이면 청보리가 가득한 섬이다. 청보리와 푸른 바다 생각만으로도 마음 가득 설렘으로 충만하다. 올레길을 따라 뒷짐 지고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여 가파도에서는 시간을 잊어도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는다. 북항 상동방파제가 거센 파도를 물리치며 오는 손님을 안전하게 반갑게 맞이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안내판이 같이한 우리들의 발길이 스스로 알아서 구경시켜준다. 상동할망당에서 시작해 팽풍덕-고냉이돌-산책로-개엄주리코지를 거쳐 하동할망당에서 가파로 횡단도로(가파로67번길)를 따라오며 가파섬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거쳐오면 출출한 속은 춘자네 짜장면이 채워주고 얼마 안 있어 뱃고동이 울린다. 가파도에서는 돌담-집담과 밭담, 환해장성-은 쌓은 돌 하나하나가 수석壽石이며, 곁을 끼고 걸으면서 돌담이 들려주는 얘기에 귀 기울이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역사와 문화·생활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 비오·비야와는 황금 보리밭(17만평)을 걸으며 소먹이며 보리 구워 먹으며 입가를 까맣게 칠했던 촌놈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였고, 숙이와는 초겨울채비가 한창인 가파도민의 삶의 길인 가파로와 해안 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올레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얘기하였고, 최고봉(해발 20m)에 올라 나래를 펴고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며 가파도를 얘기하였다. 가파도에 왔다~~~.

비양도, 애기업은돌, 코끼리바위

뱃길(당일선착순발권) 모슬포 운진항 가파도선착장 모슬포호

비양도飛揚島, 한림읍 비양리/면적 0.517㎢

산이 날아와 만들어진 봄날 같은 섬 서쪽 날개 비양도!

협재·금능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이는 수석처럼 아름다운 섬이 비양도다. 제주의 서북 방향 중국 쪽에서 산봉우리 하나가 제주를 향해 날아와 한림바다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산이 날아온다고 소리치자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 지금의 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2개의 분화구가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대체로 평탄하고 해안선은 대부분 기암괴석들이 형성되어 있다.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섬을 둘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아름다워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비양봉산책로 나무계단을 올라 전망대에서 날아가는섬飛揚島에 동승해 펼쳐놓은 전망을 구경하고 대숲 사이로 난 타이어매트길을 올라 등대불을 밝히고 내려와 서-북-동-남 순환 해안산책로(시멘트포장길)를 산책하면서 비양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간다. 비양봉(표고 114m. 큰암메 깊이 79.8m, 족은암메 깊이 26.5m)에 위치한 하얀 등대와 코끼리가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코끼리바위, 어린아이를 업은 형상의 용암기종 애기업은돌(負兒石), 바닷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긴 염습지 펄랑못은 비양도가 간직한 3가지 보물이며 코끼리바위, 코끼리 조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비양도 모양)은 비양도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코끼리 형상이다. 해안가를 산책하면서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특유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마라도, 최남단

의 비양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비양도 분교는 우리에게 빛나는 졸업식의 추억을 되새겨주고, 드라마 봄날(SBS/2005년) 촬영지는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이어주고, 옥색 바다와 함께하는 해안산책길(직접 찍어봐!)은 오늘을 남기는 인기장소다. 정성 가득한 맛 전복죽이나 고소하고 진한 보말죽을 깜빡하고 주인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면 매운탕도 일품이니 오늘은 매운탕으로 출출함을 채우고 다음에는 전복과 보말죽으로 비양도의 맛을 새기면 된다.

뚜벅이 한림로(1116번로) 한수리(202번) → 하루 3~4회 운항 비양호 뱃길 5㎞/탐방 약 5.7㎞

마라도馬羅島, 마라해양도립공원, 대정읍 마라리/면적 0.3㎢, 최고점 39m

국토 최남단 섬으로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섬 마라도(N33°07'/E126°16'천연기념물 제423호)! 제주도의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이지만 대한민국 최남단섬(진짜 최남단은 이어도다-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국토 최남단)이라는 명성 덕분에 우도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이다. 10만 평 정도에 불과한 높은 언덕이나 봉우리가 없는 빌레섬으로 주민 10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사는 동화 같은 마을풍경에 절, 교회, 성당이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독특한 모양을 뽐내는 초콜릿박물관과 등대 등이 강한 인상을 준다. 통신사의 짜장면 광고로 마라도≈짜장면의 이미지화로 여남은 짜장면집이 한곳에 모여 경쟁적으로 원조 마라도 짜장면이라고 선보이는 네임드관광지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단 한 대의 차도 없는 섬(?)으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섬의 풍광 향기를 가득 안고 돌아오면서, 파도 소리에 실려오는 우스개 한마디에 귀 기울여 본다-육지의 한 빚쟁이가 가파도에서 마라도까지 도망쳐 왔는데, 빚을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된다는 풍문에 솔깃해 이어도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채업자의 농담이다. 하늘에서 보면 송악산이 부남코지에 낚싯대를 고정시키고 낚시하는 모습이다. 가파도는 찌요, 마라도는 추며 오가는 배는 낚싯줄이다.

송악산 입구에서 마라도가는 여객선이나 운진항에서 정기여객선을 타고 마라도에 갈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대정읍 산이수동포구(송악산호)에서 출발해 용암절벽 살레덕선착장에 내려 마라로 동쪽 해안산책로(목책울+잔디길)를 따라 가족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면서 국토의 최남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大韓民國最南端유명세는 어쩔 수 없기에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뿌듯한 마음을 숙이와 함께하며 잔방스럽게 남쪽 장군바위로 가서 두손 잡고 만세라도 불렀다. 대양의 파도와 바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니 얼른 산책길로 돌아와야 한다. 남쪽 해안을 지나 서쪽 해안과 거리를 둔 시멘트포장길에서 보도블럭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해안자연경관은 사람 사는 동네 구경으로 바뀌었다. 즐비한 민박과 음식점이 마라도의 상업중심지다. 시키면 배달도 된다는 마라도 짜장면도 여기에 있다. 오늘은 홀에서 직접 시켜먹으면 된다. 그렇게 배 시간도 딱 맞게 짜여 있다. 마라교회·성당도, 기

원정사도, 할망당도, 장군·대문바위도 마라도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마라치안센터가 마라리복지회관이 마라분교가 태양광발전소가 마라도등대가 마라섬사람들의 삶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어주고 있다. 북동해안산책로 왼쪽에 있는 짜장면 시키신 분은 건너편 관광손님을 되돌리고자 한다.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집이요하고. 해녀촌·심봉사·원조도 만만찮다. 마라도의 맛은 있는가? 바다를 품은 맛(해물·해초)이 마라도 짜장면의 맛이다.

뱃길(사전예약) 모슬포 운진항 정기여객선과 송악산 입구 상모리 마라도 가는 여객선

제주의 섬들

차귀도(遮歸島, 천연기념물 제422호) - 사랑이 하고 싶어지는 해넘이 풍경! 본섬 대섬竹島, 지실이섬, 와도 등 3개의 섬과 수면 위로 솟은 암초인 장군여, 썩은여, 간출암 등으로 이뤄져 있는 차귀도는 무인도 중에서 가장 크며 제주 서북부 최고의 낚시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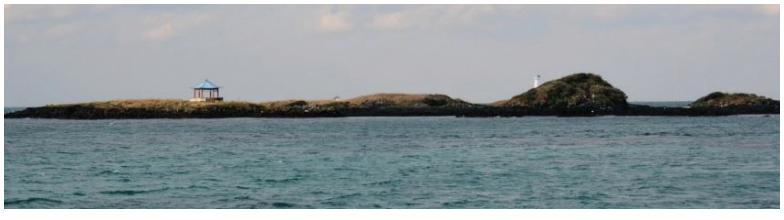
옛날 호종단이라는 중국사람이 장차 중국에 대항할 형상을 지녔다 하여 이 섬의 지맥과 수맥을 끊어遮 놓고 돌아가려歸 하는데 갑자기 한라산신이 날쌘 매가 되어 날아와서 이들이 탄 배를 침몰시켰다고 해서 차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억새와 조릿대가 무성한 차귀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 기암괴석으로 절경을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해질 무렵 노을이지는 순간 바다와 섬과 석양이 연출하는 장관의 장엄함과 잠수함 비너스호가 보여주는 바닷속 풍경도 정말 아름답다.

토끼섬 - 구좌읍 하도리 굴동포구 앞에 표류하는 듯 떠 있으면서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작은섬, 난들여.여름이면 하얀 문주란으로 온통 뒤덮인 모습이 토끼를 닮았다 해서 토끼섬이라 붙여졌다. 백사장과 약 10m 높이의 현무암동산으로 이뤄진 토끼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주란이 자생해 천연기념물 19호로 지정돼있다. 올레 20길을 가면서 더위에 지친 당신을 위해 핏발선 빨간 눈으로 위로하는 토끼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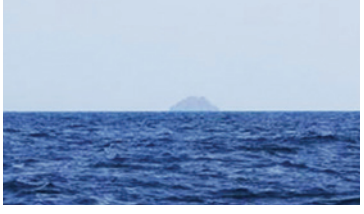
다려도 - 섬의 모습이 물개를 닮았다고 해서 달서도獺嶼島라고도 한다. 현무암의 바위섬으로 서너 개의 작은 섬이 모래벌판으로 이어져 거센 파도와 해풍을 견뎌내고 있다. 제주시 숨은 비경 31경 중 하나인 다려도-작은 바위섬에서 원앙새들과의 조우를 기대한다. 북촌항과 함께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북촌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4·3 당시 삶을 같이했던 북촌주민들의 학살현장을 지켜만 봐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간직한 다려도는 제주북촌마을 4·3길과 올

차귀도 - 대섬, 지실이섬, 와도

토끼섬과 문주란



다려도



대·소관탈도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고근산에서 본 지귀도, 섶섬, 문섬

범섬, 법환포구

레 20코스에서 풍파진 모습을 멀리서나 만날 수 있다.

관탈도冠脫島는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 제주해협에 있는 무인도로 추자군도의 가장 남쪽에 있다. 암질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부의 정상(81m)을 정점으로 급경사의 단애로 접안이 어렵다. 큰관탈도에서 남서쪽(8.5㎞)에 작은관탈도(정상 30m)가 있다.
제주도로 유배 오는 수많은 관리들이 이 섬을 지나가면 유배 온 것을 실감하면서 머리에 썼던 관을 벗고 임금님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관탈冠脫이라 불렸다고 한다. 유배인은 죄수이지만 그때까지는 관복을 입도록 호송관도 여유를 보였을 것이나 관탈도를 지나면서 죄수복으로 갈아입도록 했다는 그런 섬이다.

서귀포의 섬들

서귀포시에는 저마다의 전설과 이야기가 있는 무인도들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 사냥꾼이 한라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그만 실수로 활집으로 옥황상제의 배를 건드리니 크게 노한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흩어져서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과 범섬이 되었다고 한다.

섶섬(森島, 해발 155m, 천연기념물 제18호) - 식물의 보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벼랑으로 둘러싸여 숲이 많아 숲섬이라 불리었는데 변음되어 섶섬으로 불린다. 이름처럼 상록수림으로 뒤덮인 무인도로 1,80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하는 보물섬이며 서귀포시의 해안풍치를 돋구어준다. 해상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풍치가 일품이다. 천연기념물인 파초일엽芭蕉一葉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문섬(文島, 해발 82m, 천연기념물 제421호) - 가을 최고의 낚시터! 외돌개에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서귀포항의 관문 문섬은 문화재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수중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어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들이 서식하며 각종 희귀산호들도 자라고 있어 국내 최고의 수중생태계의 보고다. 동북쪽에는 새끼섬인 의탈섬이 자리 잡고 있다. 민둥섬이어서 섬이라 했는데 일본사람들이 모기가 많아 모기문蚊자를 썼다고 한다. 가을 돔낚시에서 모기에 물린들 그 짜릿한 손맛에 비할 손가?

범섬(虎島, 해발 84m, 천연기념물 제421호) - 호랑이의 위엄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섬!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한 신비한 섬. 섬 전체가 암벽으로 된 절벽과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울 때 두 발로 뚫어 놓았다는 해식동굴(쌍굴)로 되어 있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왕관처럼 보인다.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면 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새섬 - 서귀포항의 바로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로 서귀포항을 천혜의 양항이자 미항으로 불리게 하고 있다. 한자로는 초도草島라고 하는데 이는 초가지붕을 덮는 새(草)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썰물 때는 걸어서 건너갈 수도 있다. 서쪽 맞은편 해안에는 서귀포층패류화석지대(천연기념물 제195호)가 있다.

지귀도(地歸島, 직구섬, 높이 14m) - 섬 모양은 동서길이가 긴 타원형으로 중앙부는 평평한 용암대지 모양으로 억새군락으로 황무지이며 다른 섬과는 달리 완만한 침강 해안으로 이루어져 수심이 얕아 섬 주변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관광 유어장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갯바위낚시와 체험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서건도, 강정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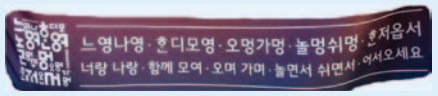
형제섬, 사계해안

서건도 - 바다가 갈라지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 한 달에 10여 차례 걸쳐 앞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등장하는 갯벌은 신비감까지 느껴진다. 갯벌을 걸으면서 조개나 낙지 등을 잡은 체험과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올레7길을 걷다가 물때가 맞으면 기적의 길을 따라 서건도까지 단숨에 갔다 올 수 있다.

형제섬 - 함께여서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 산방산 앞에서 큰섬과 작은섬이 어우러진 모습이 사이좋은 형제처럼 보인다. 본래는 큰섬이 본섬, 작은섬이 웃섬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다 모습까지 비슷한 탓에 형제섬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올레 10길 사계리 해안을 걸으면서 형제가 우애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썰물 때만 모습을 보이는 새끼섬과 암초들 때문에 보기에 따라 섬의 개수와 모양새가 달라져 보인다. 일출이나 일몰 순간을 담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 동시에 스킨스쿠버다이버에게도 최적의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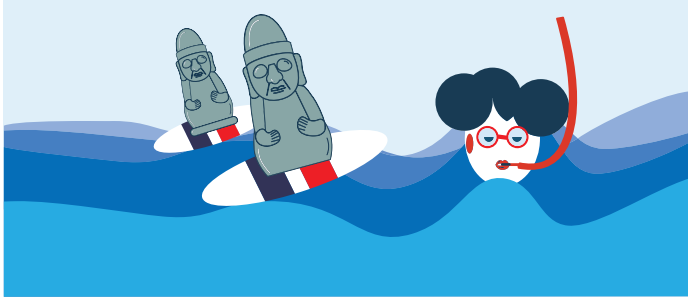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



제주음식 : 섬에 나들이 갔으니 섬에서 점심 먹는다. 추자항의 굴비정식, 마라도·가파도의 짜장면·짬뽕, 비양도의 보말죽·매운탕, 우도의 땅콩아이스크림과 막걸리 한 사발.

제주명소

섭지코지와 광치기 해변 유채꽃 : 제주의 전통과 서귀포 바다에서 당신이 있어 더욱 아름다움 곳. 드넓은 잔디와 아름다운 중문바다의 이국적인 알드르잔디광장의 시크릿가든키스벤치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샷과 무병장수한다는 카노푸스별 Canopus,老人星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관측정자에서 인생샷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가든(SBS/토·일/2010.11~2011.1/하지원·현빈).

오르미들이 부르고 자칭 타칭 그럴싸한 이름에 걸맞은 오름왕국을 통치하는 오름들이 있다. 천자 장구목, 제왕 다랑쉬, 마왕 노꼬메, 군주 바리메와 여왕 따라비오름이 있다. 가시리 들판을 통치하는 여왕의 은덕으로 3대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따라비오름 왕국을 찾아간다. 오름을 따라 말길로 이어가면서 살았던 가시리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가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보자.